

“아무것도 모른다구요? 그러니 한계도 없죠”

상월선원 유튜브채널 운영
초보 유튜버 3인의 도전

정오 스님·정상훈·김민겸씨
배우고 익히며 선원 소식 방송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도화지 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들이 담아내는 위례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또한 어떤 그림이 될지 알 수 없다. 카메라로 촬영하고, 편집을 하고, 자막을 넣는 이들도 어떤 색과 그림이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걱정이 없고 자유롭다.

위례 상월선원에서 진행 중인 천막결사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유튜브팀은 한국불교의 대전환점이 될 역사의 현장에서 있다. 다큐프로그램 전문가라 해도 깊은 고민이 앞설 일에 초보 유튜버 3명이 겁 없이 담벼들었다. 유튜브팀을 이끌고 있는 정오 스님은 불과 한 달여 전까지도 유튜브가 뭔지 몰랐다. 출가 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을 맡을 만큼 신심 깊었던 스님은 출공 선방에서 정진한 수좌였다. 올해도 하얀겨 정진을 마치고 인연 있는 스님들에게 인사를 다니던 중 달려온 유튜브 제작소임을 맡게 됐다. 그저 어른스님들 말씀에 “에” 한마디 한 것이 그를 위례로 이끌었다.



상월선원 소식을 유튜브 방송용으로 제작 중인 정오 스님과 정상훈, 김민겸씨.

“소임을 맡고 나서야 유튜브를 처음 봤습니다. 막상 보고나니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하나의 정보, 영상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유튜브의 세계가 천막결사 현장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스님의 발심이 아홉 스님의 결사로, 그리고 불자들의 동참으로 모두의 열력이 되고 한국불교 중흥의 토대로 확산되는 모습이 마치 유튜브 속 세상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영상이 꼭 최고일 필요는 없죠. 이 또한 하나의 씨앗이 될테니까요.” 정오 스님과 함께 팀을 이루고 있는

정상훈씨는 올해 동국대 대학원에 입학했다. 김민겸씨도 불교회화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유튜브 영상 제작에 별다른 경험이 없기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촬영부터 편집까지 하나하나 배우고 익혀가고 있다. “세간에 살고 있는 대중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결사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정상훈씨는 “천막결사를 외호하기 위해 상월선원을 찾은 사부대중의 모습과 위례선원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번 정진에 동참한다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김민겸씨는 “아직 각자의 역할이 정확히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천막결사를 외호하겠다는 한마음으로 모인 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와 협력만큼은 최고”라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어낼지, 우리 자신도 모르는, 그것이 우리 팀의 최고 지력”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유튜브에 펼쳐진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그렇게 사부대중의 희망과 열력을 담아내며 오늘도 더 큰 결사로 성장하고 있다. 위례=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위례 상월선원 정진열기에 휴일은 없다

안성 칠장사·대원사·백마사
사부대중 70여명 정진 동참

석가모니불 정진소리가 일요일 오전의 한가로운 분위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다. 휴일의 느긋함을 떨쳐버리고 치열한 정진 현장을 찾은 불자들은 사시에불사이에 맞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석가모니불을 정근하며 상월선원을 대진 조겨울의 한기를 밀어냈다.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한 9명 스님들이 천막결사에 들어간 위례 상월선원은 휴일에도 불자들의 염불소리에 찾아들었다. 11월24일 상월선원 아래 마련된 천막법당에서는 7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사시에불이 봉행됐다. 안성에 위치한 칠장사(주지 강 스님)와 대원사(주지 해용 스님), 백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상월선원서 정진 중인 스님들을 응원하는 불자들.

마사(주지 해심 스님) 스님들과 신도들은 이른 아침 버스를 이용해 상월선원을 찾았다. 불자들은 예배에 이어 석가모니불을 정근하며 임시법당을 나와 상월선원 돌았다. 일부 불자는 상월선원 입구에 세워져 있는 자물쇠를 정성껏 아무만지며 스님들의 정진을

응원하기도 했다. 칠장사 한 신도는 “이야기로만 듣던 상월선원을 직접 보니 스님들이 겨울 추위를 무사히 견뎌내실 수 있을지 걱정되고 존경스럽다”며 “스님들이 큰 깨달음을 얻어서 한국불교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길 기원했다”고 밝혔다.

다. 불자들은 스님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와 소원을 적은 등표를 상월선원 담장에 달며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원하기도 했다.

불자들과 함께 상월선원을 참배한 칠장사 주지 강 스님은 “상월선원에서 정진하고 계신 스님들이 확실대로 하셔서 불자들에게 감포법을 전해주시기 바란다”며 “수행과 공부에 적당한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마음으로 불자들도 이번 동안이 기간 동안 함께 정진하는 것이 목숨을 걸고 천막결사에 들어간 스님들을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불자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대원사 주지 해용 스님은 “한국불교를 위해 정진에 드신 스님들의 뜻을 공유하고자 신도들과 상월선원을 찾았다”며 “결사의 공덕으로 위례 신도사의 포교거점이 될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위례=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법주사, 문화 나누고 즐기며 한해 마무리

12월10일, 문화예술제 ‘야한밤’
유공자 격려·다문화 장학금 등

조계종 5교구본사 속리산 법주사(주지 정오 스님)가 문화예술제를 통해 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법주사는 12월10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2019년 산사문화예술제 야한밤(한밤)’을 개최한다. 행사는 ‘법주사 역사이해’, 2부 ‘내고장 문화유산 이해’, 3부 ‘법요식 및 장학금 전달’의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법주사 역사이해’는 법주사와 사찰 곳곳에 위치한 문화재를 통해 불교문화와 역사를 만나는 시간이다. ‘내고장 문화유산 이해’는 삼년산성, 선병국가유공, 동학혁명공원 등을 찾아 법주사가 자리한 보은의 역사와 문화를 둘러보는 자리로 꾸며진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5시 속리산유스타운에서 열리는 3부행사 ‘법요식 및 장학금 전달식’이다. 법주사는 이날 올 한해 사중에서 진행한 대내외 활동을 돌아보고 우수 종무원 및 선행단체장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과 공동으로 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및 신도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이어 품바 공연을 비롯해 참가단체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 흥겹고 유쾌한 자리를 제공한다. 법주사측은 “주민과 신도,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며 “불교와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행복을 나누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043)543-3615 김현태기자

영광군 다문화가정에 800만원 지원

불갑사·일일시호일, 11월16일
8가구에 주택개량·자녀장학금

전남 영광 불갑사와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이 영광군 다문화가정 8가구에 생활환경개선 및 자녀 장학금 800만원을 지원했다.

불갑사와 일일시호일은 11월16일 영광군 남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영광군다문화가족들의 즐거움 축제-한마음 어울마당’ 행사에서 영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고봉주)에 다문화가정 지원 기금 800만원을 전달(사진)했다. 불갑사와 일일시호일이 지원한 기금은 영광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선정한 8가구에 각각 100



만원씩 지원되며, 이번 지원금은 다문화가정의 주택 개량사업 및 자녀 장학금에 사용된다. 불갑사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이 당당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적응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결혼이주여성들을 격려했다. 임은호기자 eunholic@beopbo.com

동국대 경주캠, ‘불국사 열람실’ 동판 제막

11월26일, 중앙도서관 2층

동국대 경주캠퍼스 중앙도서관에 불국사 열람실이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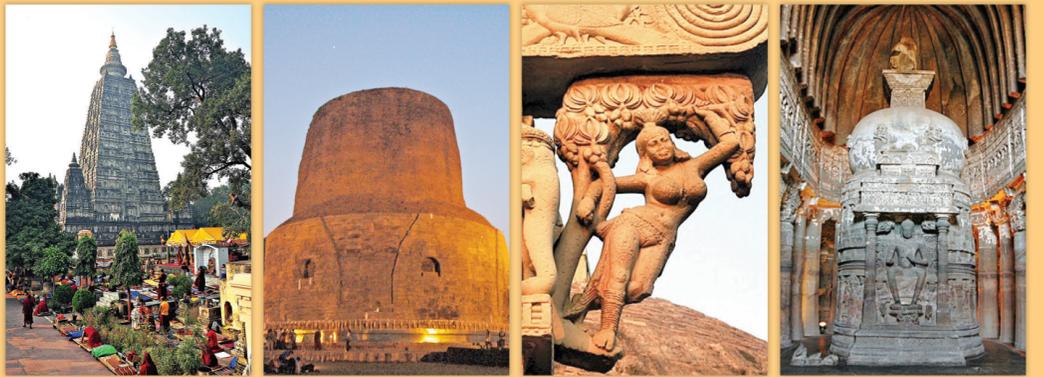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11월26일 중앙도서관 2층에서 ‘불국사 열람실 동판 제막식(사진)’을 가졌다. 앞서 불국사 회주성타 스님은 불교인재 양성고 종립대학 발전을 위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등에 10억7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성타 스님의 뜻을 기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를 널리 알리고자 중앙도서관 열람실을 ‘불국사



열람실’로 명명했다. 성타 스님은 “다른 사찰 및 스님, 불자들도 종립대학인 동국대 발전에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meopit@beopbo.com

부처님 4대성지 및 기원정사 8일

기원정사 / 룸비니 / 쿠시나가라 / 바라나시 / 부다가야
인솔자 동행, 한식제공, 노움션
* 출발문의 상담요망



또하나의 세계사 실�크로드 정통 10일 - 서안에서 천산까지

난주 / 돈황 / 투르판 / 무이 / 장액 / 천수 / 가옥관 / 유림굴 / 선선 등
* 출발문의 상담요망

